

작품 개요

「산」은 김소월(金素月, 1902~1934)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작곡자가 47세 때인 1969년 9월 15일 작곡되었다.

나운영은 소월의 시「산」을 10년 이상이나 외우고 다니다가 작곡하였는데, 그것은 이 시가 서정적이면서도 극적이고, 극적이면서도 서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. 나운영은 이 서정적인 면과 극적인 면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를 고심하다가 드디어 작품을 완성한 것이다. 그래서 나운영은 자신의 예술가곡 중에서 「접동새」 다음으로 이 「산」을 애지중지하였다.

산

김소월 詩
나운영 作曲

No. 1

M.M. ♩ = 66

산새도 오리나 죽 귀머 씨 - 운

산새는 왜-우 노 시메 산골

영남이 가려고 그러서 울 지 8 - - - - - 눈은